

南北이 하나되는 평화의 다리 이어지길...



천태종 사회부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가 8월 18일 개성 영통사에서 개최한 남북합동 칠월칠석 법회 현장 모습. 맨앞줄 왼쪽 세번째가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이요 그 옆이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이다.

개성 영통사 '남북합동 칠월칠석 법회'

"남과 북이 함께 법회를 여니 부처님도 기뻐하시겠네요." "오늘 우리가 견우와 직녀가 된 느낌이에요."

8월 18일 오전 7시, 천태종 사회부와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로 개성 영통사에서 열리는 칠월칠석 남북합동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250여 성지순례단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었다. 환희심과 설레는 마음이 교차하는 듯 약간씩 상기된 얼굴들이었다.

남북한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한 순례단이 탄 버스 5대는 1시간 30분을 달려 개성 영통사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눈앞에 다섯 개 관을 두른 모양이라는 오관산의 울창한 풀밭이 들어왔다. 그 양옆으로 고목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연봉들이 병풍처럼 이어져 있었다. 북한 개성 동북쪽 교외인 개

풍군 영남면 용흥리. 고려 태조 왕건의 선조들이 산 아래에 살았고, 연인 황진이와 서경덕이 돌아다녔다는 바로 그 산이다. 그 산 자락 한가운데에 시원스럽게 자리

명 스님은 "견우직녀가 칠월칠석에 만나듯 우리 남북한 불자들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다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통사 성지순례가 정례화돼 남북 불교도들의 신앙

라져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원 스님은 "8월 25일에도 우란분절을 맞아 백중천도법회를 이곳 개성 영통사에서 남북이 합동으로 봉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회는 '천수경 독경' '현향의식' '영산재 공연' '관음정진' '축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 천태종 스님 세 명이 바라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를 지켜본 한 북측 안내원은 "스님들도 춤을 출래? 참 신기합니다. 분위기가 흥겹기 보다는 점잖습네다" 옆에서 이 말을 들던 성지순례단원들은 가쁘르 잠았던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안내원은 왜 웃는 지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이다. 고향이 개성이라 이번 법회에 참석했다는

남북 불자 견우직녀 만나듯 한자리... "순례정례화 희망" 법회 후 문화유적 탐방...백중천도법회도 공동 봉행

잡은 넓은 절이 있었다. 3년 전 북한이 남한 천태종의 기와 등을 지원 받아 복원한 영통사다. 본전인 보광원 앞마당에 고려의 대표적 석탑인 영통사 5층석탑과 동서삼층탑이 자리잡았다.

절 마당에서 법회는 오전 11시부터 영통사 주지 혜명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해

생할이 원만히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도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칠월칠석 법회를 병행한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헤어져 있다가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견우와 직녀는 남과 북으로 갈



선죽교를 둘러보고 있는 성지순례객들.

표충비, 조선후기 석조 공예술의 진수

■ 선죽교= 점심 식사 후 고려총신 정몽주가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첩퇴에 쓰러졌다는 선죽교로 향했다. 성지순례객들은 모두 다리 위의 정몽주 밧자국부터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선죽교 유적의 백미는 한석봉이 썼다는 다리 동쪽의 선죽교 비석과 나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땀을 흘린다는 다리 서쪽의 표충비다. 특히 18~19세기 영조와 고종이 정몽주의 충절을 기려 거북이 조형물 위에 비각을 세운 표충비는 조선후기 석조 공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최고 걸작이다. 두 임금의 직접 쓴 어제·어필을 새겼는데, 왼쪽 영조가 세운 표충비의 글씨는 그의 총애를 받았던 최천약이 직접 새긴 것이다.

고풍스런 한옥에 600여점 유물 전시

■ 고려역사박물관=고려 최고교육기관인 국자감(및남 성균관)을 개조한 것이다. 고풍스런 한옥들이 잘 지란 1000년 수령의 느티나무, 은행나무와 조화를 이뤄 서울의 성균관과 비슷한 풍경을 연출한다. 박물관 안에는 고려청자와 금속 활자를 비롯, 불일사 5층탑 등 6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었다. 박물관 곳곳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 안내원이 유물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또한 박물관 앞에는 역시 한복 입은 여성들이 북한의 각종 술과 토종꿀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약간의 기념품을 판매한다.



바라춤을 시연하고 있는 남측 천태종 스님들.

천태종 신도 최준식 씨(73)는 "대각국사의 천 스님의 기상이 서려있는 이곳 영통사에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으로 법회를 볼 수 있어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합동법회 후 성지순례단은 개성 시내 문화유적인 선죽교를 탐방했으며 고려박물관

관도 참관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개성 성지순례와 관련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영통사 성지순례도 더욱더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성 영통사/글·사진=김주필 기자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기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 연꽃액자, 음미반배음률자 등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달마액자 (28x35 x 50cm) (44x42 x 65cm)

연꽃액자 26 x 26cm

죽자 60 x 20cm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병풍,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장인, 영가현도, 제례용품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금책, 연꽃액자, 음미반배음률자 등은 스님 및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불사용으로 단채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효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합니다.

순금경전규격 (스) 3.5 x 5cm (중) 5 x 7cm (대) 6.8 x 9.7cm
 · 반이심경(스,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 대)
 · 묘법연화요율(중, 대)
 · 금강경(스, 중, 대)
 · 지장보살본원경요율(중)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사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 포대화사향로
(대)26x16x16cm 155,000원
(소)20x12x12cm 95,000원

1등급 흑단목탁
직경 6~6.5cm
가격 95,000원

가게이 저렴한 흑단목염주, 흑단목탁은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제품 특성상 수중에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승명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1,500°C이상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힘과 93%의 원적외선, 높은음파음이 발산하며 98%의 삼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육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도 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변(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원적외선, 높은음파음이 발산하며 98%의 삼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

1SET(3EA) 245,000원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